

CURE

CUrrent REsearch in mental health

VOL. **2**
June 2020

Expert's View [논평] 03

- 코로나19 유행기에 마음건강 지키기 04

Current Research Trends [연구 동향] 07

정신장애 전반 08

-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신과 재입원
- 아동기 역경경험의 노출패턴과 정신건강의 관계
- 베트남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 위험요인
- 정신질환과 이후 신체질환 동반 위험
-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우울 및 불안장애의 연관성

기분장애 및 조현병 12

- 조현병 여성환자의 유방암 검사율
- 아동·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증의 관계
- 사회적 고립과 고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남녀간 차이
- 조현병 환자들을 위한 신약후보 SEP-363856의 효과
- 정신병적 증상으로 정신병적 장애 예측
- 아동기 정신병적 증상에 따른 이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및 약물치료 예측
- 정신증 미치료 기간의 치료예후 예측은 조기발견 편향?
- 입양가정을 통해 알아본 양육 환경과 우울증 발생과의 관계

발달장애 17

- 또래 괴롭힘 피해와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 군인 아버지의 정서조절과 양육행동, 아동적응의 관련성
- ADHD 인식에 대한 인종 차이
- ADHD 청소년들의 작업기억 하위요소들의 기능

불안, 수면 및 섭식장애 20

- 소아 강박장애와 발모광의 신경인지적 특성비교
- 치료 불응성 강박장애 환자 대상 뇌심부자극술의 효과
- 섭식장애 치료에 대한 원격 치료의 효과
- 스트레스, 충동성, 우울 및 불안, 수면장애의 관련성
- 신경성 식욕부진증 청소년 대상 낮병원 프로그램의 효과

중독 24

- 알코올사용장애에 대한 케타민과 동기강화치료의 병행 효과
- 인종에 따른 청소년의 물질사용과 종교활동의 관계
- 인종에 따른 알코올과 담배사용의 차이
- 정신질환자의 유죄판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사용장애와 위험요인들

자살 27

- 청소년의 자살 사고와 사회적 맥락의 관계
- 청소년의 만성질환과 자살행동의 관계
- 한국 근로자들의 자살사고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 우울증 환자의 자살에 대한 복합적 이해

NCMH's Research [연구 성과] 30

- Post-traumatic Embitterment Syndrome in Young Koreans
- Do Psychiatric Disorders Comorbid with Alcohol Use Disorder Increase Suicide Risk?
- Functional Connectivity in the Brain and Schizophrenia
- How Does Unemployment Affect the Well-being of Young Adults?



CURE

June 2020 | vol.2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호 2020년 2호

발행인 이영문

발행처 국립정신건강센터

제작부서 정신건강연구소 연구기획과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전화 02) 2204-0375

홈페이지 www.ncmh.go.kr

디자인 및 제작 평강도탈프린팅

CURRENT RESEARCH IN MENTAL HEALTH

Expert's View

[논평]

「CURE-논평」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의 견해이며 국립정신건강
센터의 공식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기에 마음건강 지키기

감염병은 피해 규모와 복구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증상이 발현되기 전까지 감염원에 대한 노출과 감염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 수준이 매우 높은 재난이다. 특히 신종 감염병의 경우 감염경로, 감염력, 치명률, 치료제 효능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포감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감염병 유행기에는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한 스트레스, 감염병과 관련된 낙인과 차별이 주된 심리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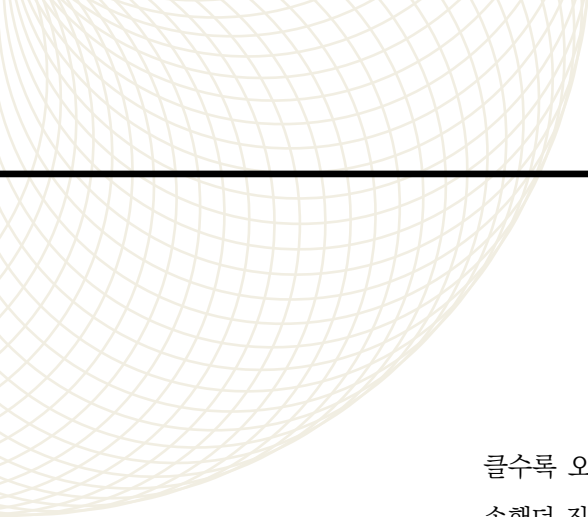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고통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인의 47.5%가 불안이나 우울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Fiorillo와 Gorwood (2020)은 감염병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와 함께 외로움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였는데¹⁾, 특히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지지체계가 취약하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집단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고독은 무력감, 심적 고통을 수반하며 우울증,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003년 SARS 유행시 노인층의 자살율이 3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²⁾.

고독함, 외로움은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 심신의 여유로움을 의미할 수 있지만, 사회적 관계를 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고통이 될 수 있다. 이때 사회적 관계란 단지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곁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의 존재를 의미한다. 잠깐 떨어져 있더라도 의미 있는 대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외로움은 애착대상이나 지지집단 등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과 소속감과 같은 집단적인 요소를 포함한다³⁾. 감염병과 관련된 낙인이나 차별을 접할 경우 집단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가 좌절되면서 심각한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 2015년 메르스 감염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조사에서 감염의 피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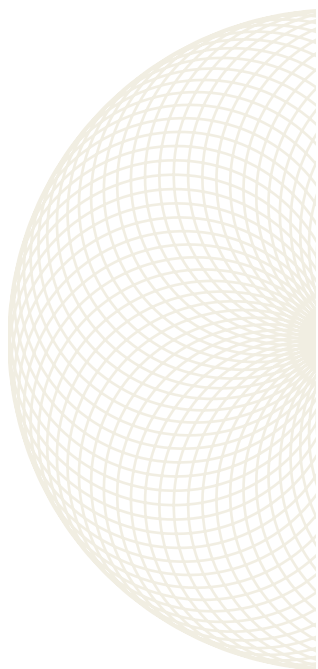


클수록 오히려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믿었던 사람들과 자신이 속했던 집단으로부터 냉대 받은 경험은 감염병보다 더 큰 트라우마가 되어 이들의 심리적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 여타의 재난과 달리 사회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은 감염병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아무도 코로나19 감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러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대국민 지침이 요구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함께하는 마음건강 지침을 발표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함께하는 마음건강지침

1. 일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대처하세요.
2. 도움을 주고 받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3.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에 책임감을 갖습니다.
4. 감염병 대응 의료진과 업무 종사자들을 응원해 주세요.
5.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화합에 앞장서주세요.
6.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세요.
7.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혐오와 낙인은 부메랑과 같다.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유입했을 때 우리 사회에는 중국 공포증, ‘시노포비아’로 들끓었다. 국내 확진자 숫자가 치솟으며 중국에 대한 경계는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대구, 신천지, 이태원, 성소수자 등 모습만 바꿀 뿐 혐오와 낙인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감염 위협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을 자신과 뚜렷하게 구분함으로써 안전감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감염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 자신 역시 낙인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심리적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타인을 응원하고 돕는 이타적인 활동은 사회적 회복을 촉진할 뿐 아니라 자신의 효능감과 자존감도 향상시킨다. 보편적인 이타성은 타인과 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재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차별과 낙인에 반대하며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포용과 이해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감염병으로 인한 고독감을 이겨내고 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일 것이다.

참고문헌

1. Fiorillo A and P Gorwood, The consequ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on mental health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Eur Psychiatry*, 2020; 63(1): p. e32.
2. Yip PS, YT Cheung, PH Chau, and YW Law, The impact of epidemic outbreak: the case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and suicide among older adults in Hong Kong. *Crisis*, 2010; 31(2): p. 86-92.
3. Cacioppo S, AJ Grippo, S London, L Goossens, and JT Cacioppo, Loneliness: clinical import and interventions. *Perspect Psychol Sci*, 2015; 10(2): p. 238-49.

CURRENT RESEARCH IN MENTAL HEALTH

Current Research Trends

[연구 동향]

「CURE-연구 동향」에 수록된
원고는 외부로 게재, 인용, 및
재사용을 금지합니다. 각 논문의
자세한 내용은 원 논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 전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신과 재입원

출처 : Edgcomb, J. B., Sorter, M., Lorberg, B., & Zima, B. T. (2020). Psychiatric readmiss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iatric Services* 71(3), 269-279.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ps.201900234>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늘면서 이들의 재입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dgcomb 등(2020)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입원률 및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에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PubMed/MEDLINE, Google Scholar 및 PsycINFO에서 검색한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재입원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총 33개의 논문($N = 76,219$)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중, 약 13%($N = 10,076$)는 재입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입원과 관련된 요인들은 첫 번째 입원 당시 자살사고($OR_{pooled} = 2.35$, 95% CI = 1.64-3.77), 정신병적 장애($OR_{pooled} = 1.87$, 95% CI = 1.53-2.28), 요양시설(residential treatment)로 퇴원($OR_{pooled} = 1.84$, 95% CI = 1.07-3.1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재입원을 낮추기 위해 자살행동, 정신질환의 중증도 및 퇴원 후 경과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한 개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재입원을 낮추는 효과적인 개입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아동기 역경경험의 노출패턴과 정신건강의 관계

출처 : Ho, G. W., Bressington, D., Karatzias, T., Chien, W. T., Inoue, S., Yang, P. J., ... & Hyland, P. (2020). Patterns of exposure t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mental health: a survey of 1346 university students in East Asia.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5(3), 339-349.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19-01768-w>

부모와의 이별, 사고, 폭력 등과 같은 아동기 역경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은 정신건강 문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요인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역경경험의 누적적 위험(cumulative risk approach)¹⁾을 강조하며 진행되어 왔다. 한편, Ho 등(2020)은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역경경험의 노출패턴에 기반한 접근(pattern-based approach)²⁾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에는 1,346명의 대학생(홍콩, 중국, 대만, 일본 출신)이 참여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1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ACEs와 우울, 불안, 부적응, 외상 후 스트레스를 평가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ACEs의 노출패턴은 ‘낮은 노출형(76.0%)’, ‘가정폭력 노출형(20.6%)’, ‘역기능가정 노출형(3.4%)’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역기능가정 노출형’은 다른 두 유형과 비교하여 ACEs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연령과 성별을 통제하고 살펴보았을 때, ‘가정폭력 노출형’은 ‘낮은 수준의 노출형’에 비해 우울과 부적응 증상이 더 높았다. 또한 ‘가정폭력 노출형’과 ‘역기능가정 노출형’은 모두 ‘낮은 수준의 노출형’에 비해, PTSD 진단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불안증상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Ho 등(2020)은 ACEs의 수(number)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동시발생에 대한 패턴과 특성을 주목하는 것이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 아동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위험요인들의 총합, 누적의 수를 강조(출처: Evans, G. W., & Cassells, R. C. (2014). Childhood poverty, cumulative risk exposure, and mental health in emerging adults.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2(3), 287-296.)

2) 역경경험의 개개인의 패턴을 확인하여 유형화하는 것, 잠재계층분석 같은 통계적 기법에서 주로 사용



베트남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 위험요인

출처 : Collier, K. M., Weiss, B., Pollack, A., & Lam, T. (2020). Explanatory variables for women's increased risk for mental health problems in Vietnam.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5(3), 359-369.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19-01761-3>

저소득 국가 여성들의 정신건강 위험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인구학적 또는 환경적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는 불분명하다. Collier 등(2020)은 동남아시아 저소득 국가 중 베트남 여성의 잠재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및 관련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베트남 중부 해안의 5개 주에서 90명의 성인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우울증(PHQ-9), 불안(GAD-7),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PDS), 신체화 증상(SCL-90-R), 알코올 의존(ICD-10), 기능장애(PDS life functioning section), 주관적인 신체건강상태(SF-36), 재정적 스트레스와 교육수준, 외상사건 노출에 대해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알코올 의존을 제외한 모든 정신건강문제에 높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또한 높은 재정적 스트레스와 낮은 교육 수준은 여성의 정신건강 위험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저소득 국가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예방을 위하여, 경제적 안정성과 교육에 있어 성 평등에 대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과 이후 신체질환 동반 위험

출처 : Momen, N. C., Plana-Ripoll, O., Agerbo, E., Benros, M. E., Borglum, A. D., Christensen, M. K. et al. (2020). Association between mental disorders and subsequent medical condition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82(18), 1721-1731.

링크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oa1915784>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신체질환을 동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ott 등(2020)은 덴마크 국가 등록체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약 600만명)을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추적 관찰하였으며, 총 10가지 정신질환군과 9개의 신체질환군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관찰 시작 시점에서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32.1세였다. 연구 결과, 관찰기간 동안 약 70만명이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90개의 조합 중 76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인에 비해 신체질환을 가질 위험이 더 높았으며, 위험비(Hazard Ratio, HR)의 중앙값은 1.37이었다. 위험비가 가장 낮은 조합은 기질적 정신장애와 암(HR = 0.82, 95% CI, 0.80 - 0.84)이었으며 가장 높은 조합은 섭식장애와 비노생식계 질환(HR = 3.62, 95% CI, 3.11 - 4.22)이었다.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15년 후 신체질환이 생길 절대 위험(absolute risk)을 분석한 결과, 낮게는 0.6%(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 중 비노생식계 질환이 생길 비율), 많게는 54.1%(기질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중 순환계 질환이 생길 비율)로 폭넓게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신질환 유형별로 취약한 신체질환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조기개입, 치료 등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우울 및 불안장애의 연관성

출처 : Ahmadabadi, Z., Najman, J. M., Williams, G. M., Clavarino, A. M., d'Abbs, P., & Tran, N. (2020).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ubsequent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5(5), 611-620.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19-01828-1>

친밀한 관계 내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은 단기 및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Ahmadabadi 등(2020)은 IPV 경험유형이 이후의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Mater-University의 Queensland Study of Pregnancy 자료를 사용하였고, 총 1,529명을 9년동안 추적관찰 하였다. 이에 21세 때 복합적 학대척도(Composite Abuse Scale)를 사용하여 IPV를 조사하였고, 30세에 국제진단 면담도구(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를 사용하여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의 경우 21세 때의 IPV는 유형과 상관없이, 30세 때의 우울장애의 발병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에 우울장애를 진단받은 여성의 경우, IPV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21세 때 IPV는 30세의 불안장애의 발병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과거에 불안장애를 진단받은 여성의 경우 IPV와 연관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IPV와 우울장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1세 때의 IPV 유형 중 정서적 학대는 30세의 불안장애의 발병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IPV에 의한 정신건강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기존에 앓았던 정신질환 및 남녀간의 차이를 고려한 세분화된 개입 방안이 필요하겠다.





기분장애 및 조현병



조현병 여성환자의 유방암 검사율

출처 : Hwong, A., Wang, K., Bent, S., & Mangurian, C. (2020). Breast cancer screening in women with schizophreni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iatric Services*, 71(3), 263-268.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ps.201900318>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여성환자는 일반인구에 비해, 질병의 후기단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통일된 결과가 부족하다. Hwong 등(2020)은 체계적인 문헌검토를 통해 조현병 여성과 일반인구의 유방암 선별검사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PubMed, Embase, Web of Science, PsycINFO를 통해 초기부터 2018년 9월 14일까지 문헌검색을 진행하여, 유방암, 유방촬영술, 조현병, 정신병에 대한 키워드로 검색된 총 304개의 초록이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 이 중 11개의 연구에서 총 4개국의 25,447명이 조현병 또는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받은 여성을 대표한다고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조현병이 있는 여성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여성보다 유방 촬영검사를 절반 정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OR = 0.50, 95% CI = 0.38-0.64). 이러한 결과는 조현병 여성이 주로 질병의 후기단계에서 유방암이 발견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Hwong 등(2020)은 후속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들과 다른 결과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유방암에 취약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유방암 검진을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동·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증의 관계

출처 : Spruit, A., Goos, L., Weenink, N., Rodenburg, R., Niemeyer, H., Stams, G. J., & Colonna, C. (2020).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ultilevel Meta-Analysi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3(1), 54-69.

링크 : <https://doi.org/10.1007/s10567-019-00299-9>

주양육자와 형성하는 애착관계는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 발생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관련성을 살펴본 메타분석들이 있지만, 우울증보다는 광범위한 내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Spruit 등(2020)은 다층모형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 안정성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에는 123개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되었고 총 643개의 효과크기가 추출되었다. 연구 결과, 불안정 애착과 우울증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였다($r = 0.31$). 또한, 우울증과 애착안정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 애착 유형, 애착 평가 도구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안정 애착이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 발병의 예측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우울증이 있는 아동을 치료할 때에는 주 애착대상과의 애착 안정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개입을 제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남녀간 차이

출처 : Liu, H., Zhang, M., Yang, Q., & Yu, B. (2020). Gender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on depressive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5(2), 251-257.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19-01726-6>

사회적으로 분리되거나 고립되었다는 느낌은 성인의 정신건강을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성별에 따라 다른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Liu 등(2020)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과 고독감이 우울증상에 동시에 관련이 있는 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741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남 28.3%, 여 71.7%, 평균 연령 = 18.47세)으로 그들의 우울증상 및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고립감과 고독감은 모두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고립감이 우울증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독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상태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남녀간 차별화된 개입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현병 환자들을 위한 신약후보 SEP-363856의 효과

출처 : Koblan, K. S., Kent, J., Hopkins, S. C., Krystal, J. H., Cheng, H., Goldman, R., & Loebel, A. (2020). A Non-D20-Receptor-Binding drug for the treatment of schizophrenia.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82(16), 1497-1506.

링크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oa1911772>

정신질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Koblan 등(2020)은 신약 후보인 SEP-363856³⁾이 조현병 환자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아보는 임상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에는 총 245명이 참여하였으며, 120명은 SEP-363856군으로 125명은 위약군에 할당되었으며, 하루에 SEP-363856 혹은 위약을 4주간 복용하였다. 약물의 효과를 보기 위해 기저선과 4주 뒤 양성 및 음성 증후군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mptom Scale, PANSS) 점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외에 전반적 전반적 임상 인상척도(Clinical Global Impressions Severity, CGI-S), 간단 음성증상 평가도구 (Brief Negative Symptom Scale, BNSS) 등의 점수 변화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기초선 때 SEP-363856군의 PANSS 평균 점수는 101.4점이었으며 4 주 후 평균 변화는 -17.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의 경우 기초선에서의 PANSS 점수는 99.7점이었으며 4 주 후 평균 변화는 -9.7점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CGI-S 및 BNSS의 점수 변화도 PANSS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SEP-363856군에게서 나타난 부작용은 졸음과 위장관 증상이며, 한 명에게서 돌연 심장 정지사(sudden cardiac death)가 나타났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을 개발하고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 기존 조현병 치료제와 달리 도파민2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고, 아민 관련 수용체 (TAAR1)와 세로토닌 1A (5-HT_{1A}) 활성을 유도함.

정신병적 증상으로 정신병적 장애 예측

출처 : Sullivan, S. A., Kounali, D., Cannon, M. David, A. S., Fletcher, P. C., Holmans, P., et al. (2020).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examining the incidence and impact of psychotic experience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a prediction of psychotic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7(4), 308-317.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ajp.2019.19060654>

정신질환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적절한 조기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Sullivan 등(2020)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겪는 정신병적 증상의 발생, 궤도, 및 결과(정신병적 장애 진단)를 알아봄으로써,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나타나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인구기반 코호트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7,900명을 대상으로 12세, 18세, 및 24세에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정신병적 증상을 조사하였고, 행정자료를 통해 정신병적 장애의 발생률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양성예측도(positive predictive value, PPV), 민감도, 및 특이도 등을 이용해 예측도를 알아봤다. 연구결과, 정신병적 증상은 13세에서 24세 사이에 증가하며 청소년기 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더불어, 24세 때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 중 약 8%는 12세부터 명확한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세 때까지 정신병적 장애 진단 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을 보인 참여자는 2.8%였으며, 이 중 70%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양성예측도와 관련해서는, 18세에 진행한 자기보고 및 인터뷰는 24세 정신병적 장애를 각각 2.9%와 10.0%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측도는 정신병적 증상의 빈도 및 디스트레스(distress)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증가하였지만 민감도는 낮았다. 앞으로 이러한 종단 연구를 통해 이후 정신병적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을 알아내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아동기 정신병적 증상에 따른 이후 정신 건강서비스 이용 및 약물치료 예측

출처 : Rimvall, M. K., van Os, J., Verhulst, F., Wolf, R. T., Larsen, J. T., Clemmensen, L., Skovgaard, A. M., Rask, C. U., Jeppesen, P. (2020). Mental health service use and psychopharmacological treatment following psychotic experiences in pre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7(4), 318-326.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ajp.2019.19070724>

정신병적 증상은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아동기 정신병적 증상은 이후 정신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증상일 수 있다. Rimvall 등(2020)은 아동기 정신병적 증상이 이후 정신병적 장애 진단,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및 약물치료와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본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펜하겐 아동 코호트 2000에 포함된 자료 중 1,63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1-12세 사이에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면대면 인터뷰 및 지능 검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참여자들이 16-17세가 되었을 때 국가 행정자료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신장애진단, 약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이전에 정신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은 아동의 경우, 11-12세 때의 정신병적 증상이 16-17세 이전에 정신질환 진단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였다(인구통계학적 정보, 주산기 합병증, IQ 보정). 이러한 위험은 아동이 11-12세 때 다른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요인에 맞는 아동일 경우 더 증가하였지만(aHR = 7.85, 95% CI = 1.48, 5.13), 정신증 증상 하나만으로도 이후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을 위험은 높았다. 또한, 아동기 정신증 증상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및 항정신병약 사용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동기 정신증 증상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증 미치료 기간의 치료예후 예측은 조기발견 편향?

출처 : Jonas, K. G., Fochtmann, L. J., Perlman, G., Tian, Y., Kane, J. M., Bromet, E. J., & Kotov, R. (2020). Lead-time bias confounds association between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and illness course in schizophreni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7(4), 327-334.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ajp.2019.19030324>

정신증 미치료 기간(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DUP)이 길수록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치료 기간이 치료예후의 관계에 대한 기저는 밝혀지지 않았다. Jonas 등 (2020)은 긴 DUP와 나쁜 치료예후와의 관계가 조기발견 편향(lead-time bias)⁴⁾으로 인해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는 Suffolk County Mental Health Project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는 총 287명의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참가하였다. 참여자들의 DUP와 심리사회적 기능을 평가하였으며 심리사회적 기능을 분석할 때는 성별, 직업 지위, 인종 및 항정신병약 사용을 보정하였다. 연구 결과, DUP가 길었던 참여자와 짧았던 참여자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심리사회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은 심리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시기에 차이를 보였다. DUP가 긴 참여자들은 심리사회적 기능저하가 첫 번째 입원 전에 나타났으며, DUP가 짧은 참여자들은 첫 번째 입원 후 기능저하를 보였다. 정신증 증상이 발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DUP는 치료 예후를 예측하지 않았다. 즉, DUP는 치료의 예후를 예측한다기보다 정신증 환자의 중증도를 알려줄 수 있는 척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신질환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4)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환자의 생존률 혹은 예후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편향

입양가정을 통해 알아본 양육 환경과 우울증 발생과의 관계

출처 : Kendler, K. S., Ohlsson, H., Sundquist, J., Sundquist, K. (2020). The rearing environment and risk for major depression: A Swedish national high-risk home-reared and adopted-away co-sibling control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7(5), 447-453.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ajp.2019.19090911>

정신질환 발생에 대한 유전 혹은 환경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Kendler 등(2020)은 주요 우울장애 발병 원인이 양육 환경인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스웨덴의 국가 행정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 666명의 고위험⁵⁾ 친형제자매(그 중 한 명은 입양을 보냄) 및 총 2,596명의 고위험 의붓형제자매(의붓형제자매(부모 중 한 명이 같음) 중 한 명이 입양된 경우)군의 주요우울장애 위험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위험 친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에 비해 입양된 아동의 경우 우울증 위험이 친형제자매군의 경우 23% (95% CI = 7-36) 감소하였으며, 의붓형제자매군의 경우에는 19% (95% CI = 10-38) 감소하였다. 이런 입양의 보호 역할은 부모의 교육 수준을 보정하고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입양된 부모 혹은 형제자매가 주요우울장애가 있거나 입양된 가정에서 부모가 죽거나 이혼을 할 경우 입양의 보호효과는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양육 환경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적으로 안정된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고위험은 부모 중 한명이 주요우울장애로 진단을 받은 경우임

발달장애





또래 괴롭힘 피해와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

출처 : Rudolph, K. D., Monti, J. D., Modi, H., Sze, W. Y., & Troop-Gordon, W. (2020). Protecting youth against the adverse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why do parents matt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8(2), 163-176.

링크 : <https://doi.org/10.1007/s10802-019-00576-9>

또래 괴롭힘(peer victimization)은 아동의 부정적 발달 결과와 연관성이 있지만, 모든 아동이 부정적 발달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차이가 어떤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Rudolph 등(2020)은 질 높은 부모-자녀 관계가 또래 괴롭힘이 정신병리학적 문제(반사회적 행동 및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질 높은 부모-자녀의 보호 효과가 사회적 위험요인(예: 일탈하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을 낮춰주기 때문인지 알아보았다. 연구는 636명의 청소년(5학년)과 그들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3차년도(5-7학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질 높은 부모-자녀관계는 전환기 전의 또래 괴롭힘이 전환기 후의 반사회적 행동, 우울 증상, 사회적 위험에 주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보호효과는 일탈하는 또래 집단과의 연합을 완화시키기(집단과의 분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피해 청소년들의 개입에 부모를 참여시킴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군인 아버지의 정서조절과 양육 행동, 아동적응의 관련성

출처 : Zhang, J., Palmer, A., Zhang, N., & Gewirtz, A. H. (2020). Coercive Parenting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Fathers' Emotion Regulation and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8(5), 633-645.

링크 : <https://doi.org/10.1007/s10802-020-00625-8>

군인 부모는 전투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관련하여, 여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 중 정서조절은 PTSD를 발현시키는 핵심증상으로, 그들의 자녀양육과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Zhang 등(2020)은 군인 아버지의 정서조절이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간의 관계를 강압적 양육행동이 매개하는 지 살펴보았다. 연구에는 총 181명의 군인 아버지와 4-13세 사이의 자녀가 참여하였고, 2년동안 3차에 걸쳐 조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서조절은 세 가지 하위요인(정서조절의 어려움, 경험적 회피, 마음챙김성향)을 통해 측정하였다. 강압적 양육행동은 가정에 실시한 가족 상호작용 과제로 알아봤으며, 아동의 행동은 부모 및 아동의 보고를 통해 조사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저시점에서 정서조절이 미숙한 아버지는 1년 후 높은 강압적 양육행동을 보였으며, 이러한 양육행동은 2년 후 나타나는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정서조절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강압적 양육행동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미해결된 정서적 어려움이 효과적 양육을 방해하며,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적응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PTSD를 경험한 군인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 향상과 양육행동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개입을 제공하여 그들 자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ADHD 인식에 대한 인종 차이

출처 : Kang, S., & Harvey, E. A. (2019). Racial differences between Black parents' and White teachers' perceptions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8(5), 661-672.

링크 : <https://doi.org/10.1007/s10802-019-00600-y>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에 대한 성인의 인식은 인종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ang 등(2020)은 흑인아동의 ADHD 행동에 대한 흑인부모와 백인교사의 인식차이와 이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에는 흑인부모 71명, 백인교사 60명, 비교집단으로 백인부모 65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에게 교실에서 촬영한 흑인아동의 비디오를 보여주고, 아동의 ADHD 행동 및 ADHD일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더불어, ADHD에 대한 편견, 활력있는 행동⁶⁾에 대한 생각, 인종차별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백인교사는 흑인부모에 비해 아동의 ADHD 행동 및 ADHD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은 백인교사일수록, 아동의 ADHD 행동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흑인부모는 인종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ADHD행동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높았다. 낙인이나 활력에 대한 생각은 행동평가와 연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ADHD 행동평가에 있어, 문화적으로 민감한 관찰과 진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추후에는 국가나 인종에 따른 아동의 ADHD 인식차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흑인문화에서는 아동의 활력(verve)있는 행동을 장려함. 흑인부모는 아동의 과잉행동을 문화적 규범 내에 있는 정상적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출처: Olaniyan, O., dosReis, S., Garriett, V., Mychailyszyn, M. P., Anixt, J., Rowe, P. C., & Cheng, T. L. (2007). Community perspectives of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and ADHD among African American parents. *Ambulatory Pediatrics*, 7(3), 226-231).

ADHD 청소년들의 작업기억 하위 요소들의 기능

출처 : Fosco, W. D., Kofler, M. J., Groves, N. B., Chan, E. S., & Raiker, J. S. (2020). Which 'Working' Components of Working Memory aren't Working in Youth with ADH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8(5), 647-660.

링크 : <https://doi.org/10.1007/s10802-020-00621-y>

작업기억(working memory)⁷⁾의 하위영역 중 하나인 작업기억 중앙집행(central executive)⁸⁾의 기능저하는 ADHD에서 흔히 나타난다. 그러나 ADHD의 작업기억 하위기능의 손상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Focus 등(2020)은 8~13세의 ADHD 청소년(N = 45)과 ADHD로 진단받지 않은 청소년(N = 41) 사이에 중앙집행 작업기억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중앙집행 작업기억은 하위기능인 재정렬(reordering), 최신화(updated), 이중처리(dual-processing)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ADHD 청소년은 대조군에 비해 재정렬과 최신화에 있어 심각한 기능저하를 보였다. 또한 ADHD 청소년의 과반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중앙집행 기능의 저하를 보였는데, 특히 재정렬에 있어 저하가 두드러졌다. 반면, ADHD 일부 청소년들은 특정 기능에서 집단 내 평균 이상의 높은 기능을 보고하기도 하였다(8% 최신화, 20% 이중처리). 특히, ADHD 중증도를 예측할 때에는 각 하위요인 보다는 중앙집행 작업기억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특정 작업기억의 영역들보다 중앙집행 작업기억이 ADHD 증상을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되는 매커니즘임을 시사한다. 추후에는 ADHD의 인지영역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과 하위기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7) 정보를 유지 및 조작하는 다중분할체계를 의미. '언어적 정보처리', '시공간위치 등의 정보처리'와 같은 제한적 기억조작(domain-specific)과 '중앙집행'과 같은 일반적 기억조작(domain-general)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됨(출처: Baddeley, A. (2012). Working memory: Theories, models, and controvers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3, 1-29).

8) 논리적 추리, 학습, 이해와 같은 인지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함(출처: Kasper, L. J., Alderson, R. M., & Hudec, K. L. (2012). Moderators of working memory deficits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 605-617).



불안, 수면 및 섭식장애



소아 강박장애와 발모광의 신경 인지적 특성비교

출처 : Wilton, E. P., Flessner, C. A., Brennan, E., Murphy, Y., Walther, M., Garcia, A., ... & Freeman, J. B. (2020). A Neurocognitive Comparison of Pediatric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Trichotillomania (Hair Pulling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8(5), 733-744.

링크 : <https://doi.org/10.1007/s10802-020-00627-6>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와 발모광(Hair Pulling Disorder, HPD)⁹⁾은 강박증상과 관련된 원인과 현상적 특성들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지만, 소아 OCD와 HPD가 보이는 특성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Wilton 등(2020)은 OCD와 HPD로 진단받은 아동 사이에 신경인지적 기능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에는 OCD 아동 40명, HPD 아동 21명, 그리고 건강한 아동 29명과 그들의 부모가 참여하였다. 아동의 신경인지기능(억제조절력, 주의집중력, 계획실행력, 작업기억력, 시각적 기억력 및 인지적 유연성)은 자기보고 및 부모보고를 통해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신경인지기능 중 주의집중력과 계획실행력에 있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OCD와 HPD 아동이 건강한 아동에 비해 계획실행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CD 아동이 HPD나 건강한 아동에 비해 주의집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억제조절력, 시각적 기억력 등에 대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의 OCD와 HPD를 평가할 때, 신경인지적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여 임상적 진단 및 치료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9) 탈뿔기장애

치료 불응성 강박장애 환자 대상 뇌심부자극술의 효과

출처 : Denys, D., Graat, I., Mocking, R., Koning, P., Vulink, N., Figeet, M., et al. (2020). Efficacy of deep brain stimulation of the ventral anterior limb of the internal capsule for refractory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clinical cohort of 70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7(3), 265-271.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ajp.2019.19060656>

강박장애 환자 치료에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임상적으로 입증된 결과들은 제한적이다. Denys 등(2020)은 치료 불응성 강박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포(internal capsule) 내의 배측전각(ventral anterior limb)에 대한 뇌심부자극술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에는 2005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70명의 치료 불응성 강박장애 환자들이 내포내의 배측 전각에 뇌심부자극술을 받았고, 1년동안 추적관찰되었다. 치료의 효과는 기저 시점과 12개월 후 예일-브라운 강박 척도(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 Y-BOCS) 점수의 차이를 통해 알아보았다. 점수가 35% 이상 감소한 것은 반응을 보였다고 분류하고, 25-34% 감소는 부분적 반응, 25미만 감소는 무반응으로 분류되었다. 이차효과로는 해밀턴불안등급척도(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HAM-A)와 해밀턴우울등급척도(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AM-D)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12개월 후 Y-BOCS, HAM-A, HAM-D 점수 모두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Y-BOCS 점수는 약 14점, HAM-A점수는 약 13점, HAM-D점수는 약 11점이 감소하였다. 12개월 후, 70명 중 36명이 반응자로 분류되었다. 부작용은 일시적인 경조증(hypomania), 초조(agitation), 충동성 등이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기존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섭식장애 치료에 대한 원격 치료의 효과

출처 : Hildebrandt, T., Michaelides, A., Mayhew, M., Greif, R., Sysko, R., Toro-Ramos, T., & DeBar, L. (2020).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mparing health coach-delivered smartphone-guided self-help with standard care for adults with binge eat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7(2), 134-142.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ajp.2019.19020184>

섭식장애 치료에는 인지 행동적 치료(Cognitive-behavioral therapy, CBT)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치료 접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Hildebrandt 등(2020)은 Noom Monitor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CBT-Guided Self-Help(CBT-GSH) 원격의료(telemedicine)가 효과적인지 알아보았다. 연구에는 총 225명이 참여하였으며 114명은 CBT-GSH와 Noom Monitor를 동반한 치료를, 111명은 통상적 치료를 진행하였다. 또한, 18세 이상, BMI 18.5이상, DSM-5 기준으로 폭식장애(binge eating disorder) 혹은 폭식증(bulimia nervosa)에 해당, 병원에서 12개월 동안 치료를 꾸준히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참여자들에게 12주에 걸쳐서 8번의 CBT-GSH 원격의료이 진행되었으며 기저시점과 4, 8, 12, 26, 52주차에 참여자들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CBT-GSH와 Noom Monitor를 동반한 환자들이 표준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비해 폭식하는 날이 줄었으며 52주차때 관해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보상 행동(예: 토하기, 완하제 사용, 과도한 운동)과 섭식장애 증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Noom Monitor를 동반한 CBT-GSH는 통상적 치료에 비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시도를 통해 섭식장애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스트레스, 충동성, 우울 및 불안, 수면장애의 관련성

출처 : Park, I., Oh, S. M., Lee, K. H., Kim, S., Jeon, J. E., Lee, H. Y., ...& Lee, Y. J. (2020). The moderating effect of sleep disturbance on the association of stress with impulsivity and depressed mood. *Psychiatry Investigation*, 17(3), 243-248.

링크 : <https://doi.org/10.30773/pi.2019.0181>

수면장애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데 중요한 예측요소이다. 수면장애의 원인 중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정서들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Park 등(2020)은 수면장애와 충동성을 동반한 생활사건 스트레스, 충동성, 불안, 우울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총 124명의 성인으로, 그들의 수면의 질(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과 생활사건 스트레스(Life Experience Survey, LES), 충동성(Barratt's Impulsivity Scale, BIS), 불안(Beck Anxiety Inventory, BAI), 우울(Beck Depression Inventory, BDI)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 중 127명이 수면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87명은 정상군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충동성과 불안, 우울점수도 낮았으며, 수면장애는 높은 불안 및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 더불어 수면장애는 스트레스와 충동성 및 우울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수면장애의 여부에 따라 기분장애 증상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청소년 대상 낮병원 프로그램의 효과

출처 : Martínez-Sánchez, S. M., Martínez-García, T. E., & Munguía-Izquierdo, D. (2020). Clinical, Psychopathological, Physical, and Sleep Evolution in Adolescents with Restrictive Anorexia Nervosa Participating in a Day Hospital Program. *Psychiatry Investigation*, 17(4), 366-373.

링크 : <https://doi.org/10.30773/pi.2020.0016>.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AN)은 신체변화에 민감한 청소년기에 발생하며, 체중에 대한 두려움이 주요 증상이다. 특히 하위유형인 제한적 신경성 식욕부진증(Restricting-type of Anorexia Nervosa, AN-R)은 주로 금식 또는 과도한 운동으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 개입이 시급하다¹⁰⁾. Martínez-Sánchez 등(2020)은 10주간의 낮병원 프로그램¹¹⁾이 AN-R 청소년에게 효과적인지 살펴보았다. AN-R로 진단받은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후에 체성분, 신체활동, 수면 및 정신의학적 증상, 신체이미지 왜곡에 대해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낮병원 프로그램 이후 청소년의 체성분에 대한 10개의 영역 중 8개 영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반면 수면패턴은 더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기시간(night latency)은 증가하고($p = 0.002$), 수면효율(night efficiency)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35$). 이외 정신의학적 증상이나 신체이미지 왜곡 등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낮병원 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AN-R

청소년 환자들의 체성분과 같은 신체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면상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어, 추후에는 수면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보완 또는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 출처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11) 인지행동치료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가족지원과 함께 AN 치료의 효과가 알려져 있음(출처: Redgrave, G. W., Coughlin, J. W., Schreyer, C. C., Martin, L. M., Leonpacher, A. K., Seide, M., ... & Guarda, A. S. (2015). Refeeding and weight restoration outcomes in anorexia nervosa: challenging current guidelin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8(7), 866-873).



중독



알코올사용장애에 대한 케타민과 동기강화치료의 병행 효과

출처 : Dakwar, E., Levin, F., Hart, C. L., Basaraba, C., Choi, Jean, Pavlicova, M., Nunes, E. V. (2020). A single ketamine infusion combined with motivational enhancement therapy for alcohol use disorder: A randomized midazolam-controlled pilot trial.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7(2), 125-133.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ajp.2019.19070684>

알코올사용장애(Alcohol Use Disorder, AUD)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AUD 치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Dakwar 등(2020)은 케타민(Ketamine)과 동기강화치료(motivational enhancement therapy)를 병행했을 때 음주 습관에 변화를 주는지 살펴보았다. 총 4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5주동안 동기강화치료를 진행하였고 2주차에 실험군에게는 케타민을, 대조군에게는 미다졸람(midazolam)을 정맥 투여하였으며, 투여 후 3주 동안 금주여부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금주를 할 경향성이 높았으며, 재발에 대한 위험을 낮췄고, 과음을 하는 날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기강화치료를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번의 케타민 투여가 음주 행동에 변화를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Dakwar 등(2020)은 좀 더 많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AUD치료가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종에 따른 청소년의 물질사용과 종교활동의 관계

출처 : Sartor, C. E., Hipwell, A. E., & Chung, T. (2020). Public and private religious involvement and initiation of alcohol, cigarette, and marijuana use in Black and White adolescent girl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y Epidemiology*, 55(4), 447-456.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20-01830-y>

청소년의 물질관련 장애(substance-related disorder)에 대한 국가나 인종에 따른 예방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Sartor 등(2020)은 인종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종교활동이 알코올, 담배, 마리화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연구에는 11~17세 사이의 여학생 총 2172명이 참여하였으며(흑인 56.8%, 백인 43.2%), 공적인 종교활동(예배, 그 외 종교활동의 참여), 사적인 종교활동(기도, 종교의 중요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사회환경 및 심리사회적 요인(예: 부모의 감독)에 대한 영향력을 보정하기 전에는, 인종과 상관없이 종교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알코올 사용의 시작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변수를 모두 보정한 후에는, 백인 여학생의 경우에서만 종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담배(HR = 0.68, 95% CI = 0.53-0.88)를, 예배 외 종교활동의 참여는 마리화나(HR = 0.63, 95% CI = 0.47-0.83) 사용의 시작시기를 각각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활동의 예방효과가 백인 청소년에게 더 강력하며, 실제적 종교참여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물질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종에 따른 알코올과 담배사용의 차이

출처 : Pamplin, J. R., Susser, E. S., Factor-Litvak, P., Link, B. G., & Keyes, K. M. (2019). Racial differences in alcohol and tobacco use in adolescence and mid-adulthood in a community-based sampl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5(4), 457-466.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19-01777-9>

인종에 따른 건강 불평등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amplin 등(2020)은 흑인과 백인(비히스패닉계)간 알코올과 담배사용 차이를 살펴보았다. Health and Development Study 자료를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은 총 559명이다. 동일 대상을 추적관찰하여, 15-17세 청소년과 평균 50세 중년기 시기의 알코올 및 담배사용에 대해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백인 청소년은 흑인 청소년에 비해 주기적으로 음주를 할 위험이 높았으며(OR = 2.2, 95% CI = 1.2-4.0),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 또한 높았다(OR = 2.0, 95% CI = 1.2-3.2). 중년기 때의 경우, 백인이 흑인에 비해 여전히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았으나(OR = 2.3, 95% CI = 1.6-3.4), 음주를 할 때 폭음할 위험은 낮았다(OR = 0.4, 95% CI = 0.2-0.8). 또한 중년기에는 백인이 흑인에 비해 흡연을 할 위험은 낮았으나(OR = 0.4, 95% CI = 0.3-0.6), 흡연자들 중 하루에 피는 담배의 양이 반 갑 이상일 위험은 높았다(OR = 3.4, 95% CI = 1.5-7.8). 추후에는 인종에 따른 건강문제 불균형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인종간 비교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신질환자의 유죄판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사용장애와 위험요인들

출처 : Valuri, G. M., Morgan, F., Jablensky, A., Ambrosi, T. L., & Morgan, V. A. (2019). Impact of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 exposures on conviction rates by people with a psychotic illness and other mental disorde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5(4), 517-525.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19-01751-5>

범죄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Valuri 등(2020)은 정신병적 장애(Psychotic Illness, PI)와 그 외 다른 정신질환(Other Mental Disorders, OMD), 그리고 정신질환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유죄판결에 물질사용과 다른 위험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호주서부 지역의 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는 1983년~1991년에 출생한 총 184,147명으로 2001년까지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PI나 OMD 집단은 정신질환이 없는 집단보다 유죄판결률이 높게 나타났다(IRR = 3.98, 95% CI = 3.67-4.32; IRR = 3.18, 95% CI = 3.03-3.34). 한편 물질사용의 영향력을 보정한 후에는, PI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60%(IRR = 1.59, 95% CI = 1.45-1.74), OMD는 30%가 감소하였다(IRR = 2.24, 95% CI = 2.12-2.37). 다른 위험요인들(사회인구학적 요인들, 학대나 피해경험)의 영향력을 보정했을 때는 PI나 OMD 집단의 유죄판결의 위험에 약간의 변화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과 더불어 특히 물질관련 장애가 범죄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추후에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문제를 줄이기 위해, 약물남용의 동시발생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전략이 필요하겠다.

자살





청소년의 자살 사고와 사회적 맥락의 관계

출처 : Kasen, S., & Chen, H. (2020). Social context and change in suicide ide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youth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5(3), 319-327.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19-01772-0>

청소년의 자살사고(suicidal ideation)는 이후 자살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자살사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에 대한 종단연구는 드물다. 최근 Kasen 등(2020)은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이 청소년들의 자살사고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Children in the Community(CIC)연구에 참여한 9-18세 청소년(평균=13.7세) 총 748명을 기저 시점부터 10년 동안 세 번에 걸쳐 평가하였다. 참여자들의 자살사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가하였으며, 그 변화에 부모, 또래 및 학교 관련 사회적 맥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높은 모성, 또래 관계의 질, 또래의 사회적 지지, 그리고 학교참여도(school engagement)가 높을 때 자살사고는 17세까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체벌, 학교갈등이 높을 경우에는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자살예방 개입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청소년의 만성질환과 자살행동의 관계

출처 : Dean-Boucher, A., Robillard, C. L., & Turner, B. J. (2020). Chronic medical conditions and suicidal behavior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merican adolesc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5(3), 329-337.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19-01770-2>

만성질환은 성인의 자살행동에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이 청소년에게도 해당되는 지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Dean-Boucher 등(2020)은 미국 청소년들의 만성질환과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13세부터 17세 사이의 청소년 총 10,148명으로, 국가 데이터(National Comorbidity Survey)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여러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자살사고 및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연속시간 생존분석¹²⁾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피부상태, 천식, 알레르기, 두통이나 등 및 목의 통증이 있는 청소년은 자살사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살시도를 할 확률이 높았다. 더불어 심혈관 질환은 자살사고가 있는 청소년들 중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에 시작된 만성질환은 초기 및 중기 아동기에 시작된 경우와 비교할 때, 후기 자살사고 및 행동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도 신체건강상태가 자살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검진과 자살위험의 조기 선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겠다.

12)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는 비연속적 시간(예: 몇 회기) 자료를 사용하여, 특정기간 동안 개인에게 사건이 일어날 위험(확률)을 의미

한국 근로자들의 자살사고와 회복 탄력성과의 관계

출처 : Kim, S. M., Kim, H. R., Min, K. J., Yoo, S. K., Shin, Y. C., Kim, E. J., & Jeon, S. W. (2020). Resilience as a protective factor for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workers. *Psychiatry Investigation*, 17(2), 147-156.

링크 : <https://doi.org/10.30773/pi.2019.0072>

근로자의 자살사고는 개인의 정신건강상 취약성과 스트레스가 많은 근무조건 등 사회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환경이나 개인적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자살사고에 대한 예방 또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는 한정적이다. Kim 등(2020)은 한국의 근로자들 자살 예방에 있어 회복탄력성(resilience)¹³⁾이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지 알아보았다. 대상자는 26개 기관의 18세부터 63세 사이의 근로자들이 포함되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살 및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4,389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이거나 미혼일수록 자살사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자살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자살사고를 가진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고 불안이 높을수록 자살계획을 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자살사고에 유의한 보호요인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자살계획과 자살시도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해당연구는 회복탄력성이 한국 근로자의 자살사고 발생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국내 자살예방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개입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 스트레스와 환경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출처: Ahern, N. R., Kiehl, E. M., Lou Sole, M., & Byers, J. (2006). A review of instruments measuring resilience.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29(2), 103-125.).

우울증 환자의 자살에 대한 복합적 이해

출처 : Orsolini, L., Latini, R., Pompili, M., Serafini, G., Volpe, U., Vellante, F., ...& Alessandrini, M. (2020). Understanding the complex of suicide in depression: from research to clinics. *Psychiatry Investigation*, 17(3), 207-221.

링크 : <https://doi.org/10.30773/pi.2019.0171>

우울증과 자살행동의 연관성은 상당히 높다. 자살위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이 둘 간의 복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Orsolini 등(2020)은 우울증과 자살의 연관성을 광범위한 문헌검색을 통해 알아보았다. PubMed와 Medline을 사용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와 '자살(Suicide)'을 주제로, 2019년 5월 31일까지 영어로 발표된 연구들을 검색하였다. 이중 불안장애, 양극성 장애, 정신병적 장애를 동반한 다른 정신장애는 배제하였고, 제목과 초록에서 관련성이 높은 연구들만 선별하였다. 연구결과는 우울증 환자의 자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병리적 및 생물학적 요인들이 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과학적 증거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관련 있는 요인들로는 유전학, 외인성 및 내인성 스트레스 요인(예: 대인관계, 직업적, 재정적, 정신적 장애), 후생유전학,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스트레스-반응체계, 모노아민자극성의 신경전달물질 체계(특히 세로토닌성), 또한 신경면역학적 생체지표에 대한 지방질 프로필(lipid profile), 뇌-유도 신경자극 인자(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와 다른 신경조절물질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자살이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현상이며, 특히 우울증 환자들에게 더 다양한 매커니즘이 확인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우울증 환자에 있어, 자살위험에 대한 다면적 평가와 이를 반영한 치료 및 개입이 필요하겠다.





CURRENT RESEARCH IN MENTAL HEALTH

NCMH's Research

[연구 성과]

3



Post-traumatic Embitterment Syndrome in Young Kore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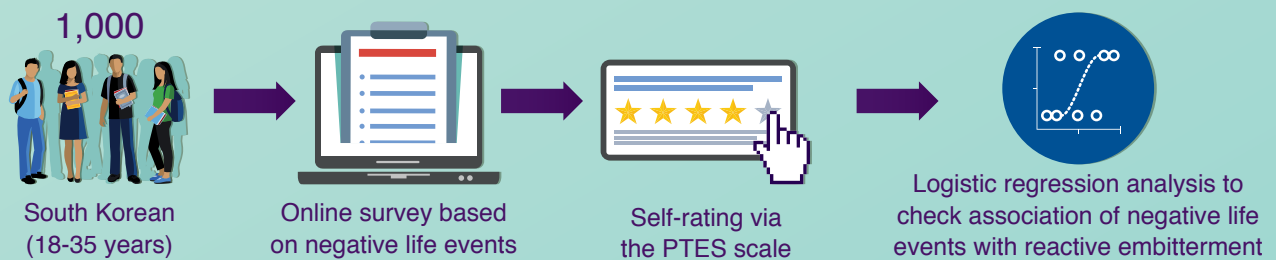
Impact of negative life events

Post-traumatic embitterment syndrome (PTES) is characterized by persistent feeling of worthlessness or being insulted and hoping for reve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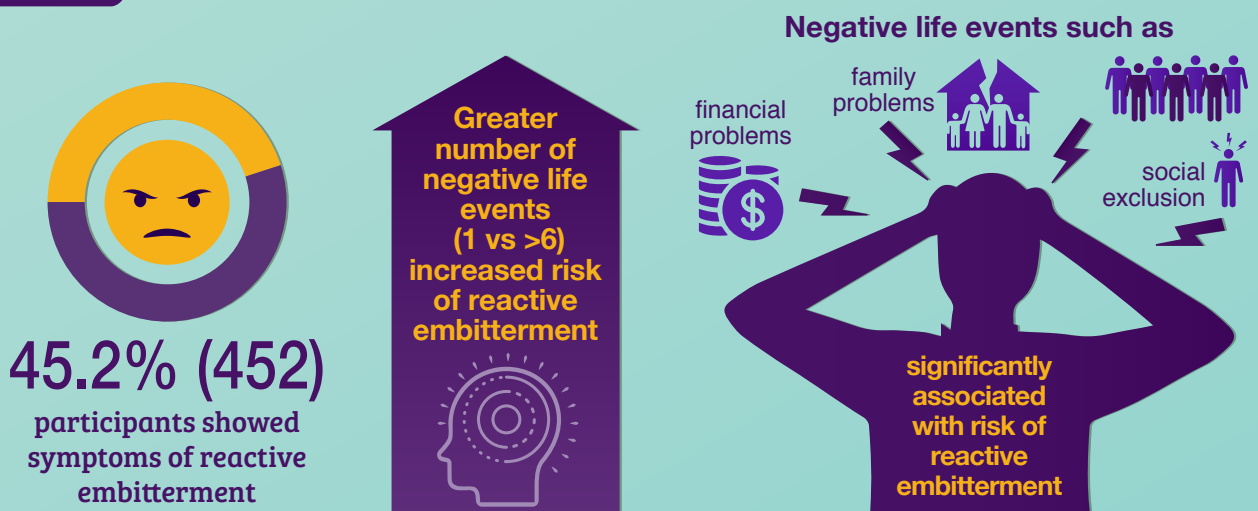


How do cumulative and differential negative life events play a role in embitterment among young adults?

Methodology



Results



Adverse events, both differential and cumulative, play a crucial role in development of reactive embitterment

Do Psychiatric Disorders Comorbid with Alcohol Use Disorder Increase Suicide Risk?

Understanding concomitant effects of comorbid psychiatric disorders to prevent suici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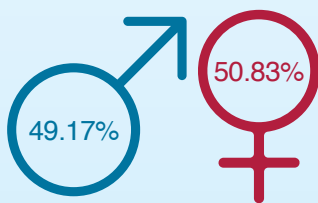
Concomitant effect of comorbid psychiatric disorders on suicide mortality is uncl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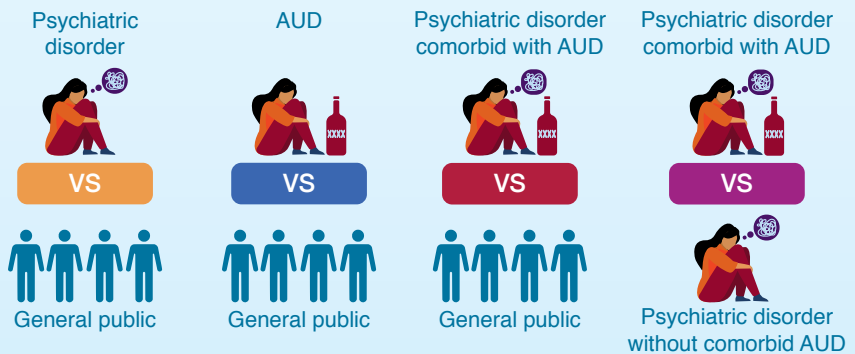
Methodolog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National Sample Cohort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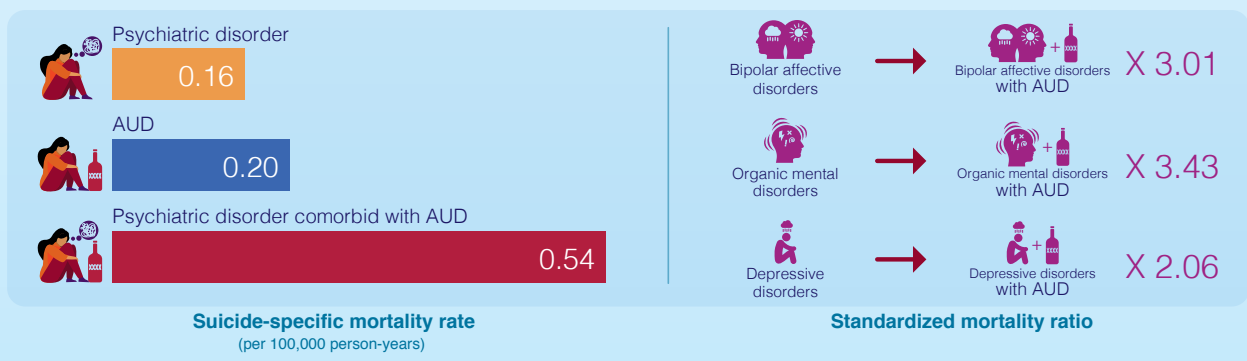
Age ≥ 20 years



All-cause mortality rates, suicide rates, and suicide specific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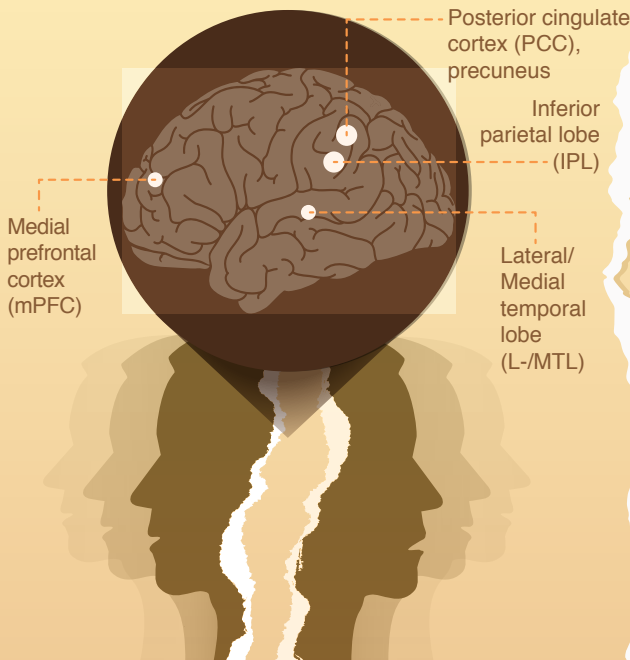
Comorbid AUD with specific psychiatric disorders increases risk of suicidal death



Functional Connectivity in the Brain and Schizophrenia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default mode network connectivity in the brain and long-term well-being in schizophrenia

The default mode network (DMN) shows high functional connectivity for a wide range of tasks in the conscious inactive state



This functional connectivity has been associated with various symptoms of schizophrenia

Bu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DMN connectivity and the long-term clinical outcomes of schizophrenia?



Aberrant DMN connectivity may be a predictive marker of the long-term clinical outcomes of schizophrenia

Methodology

30 healthy controls (HC)

79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Z) > 3 years of illness

Brief Psychiatric Ratings Scale (BPRS-18)



Moderate outcome (MO)



Good outcome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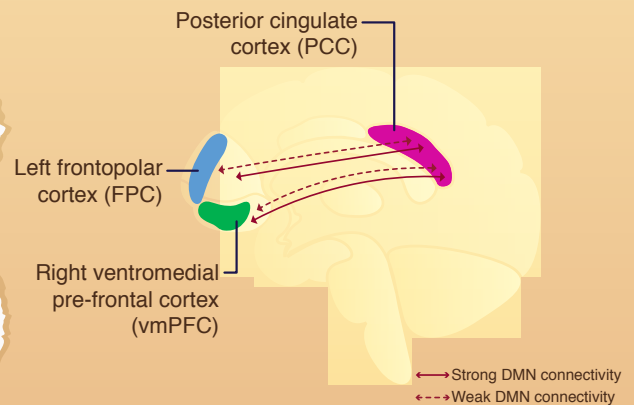
Poor outcome (PO)



Resting-state functional MRI and functional connectivity analysis

Results

DMN conne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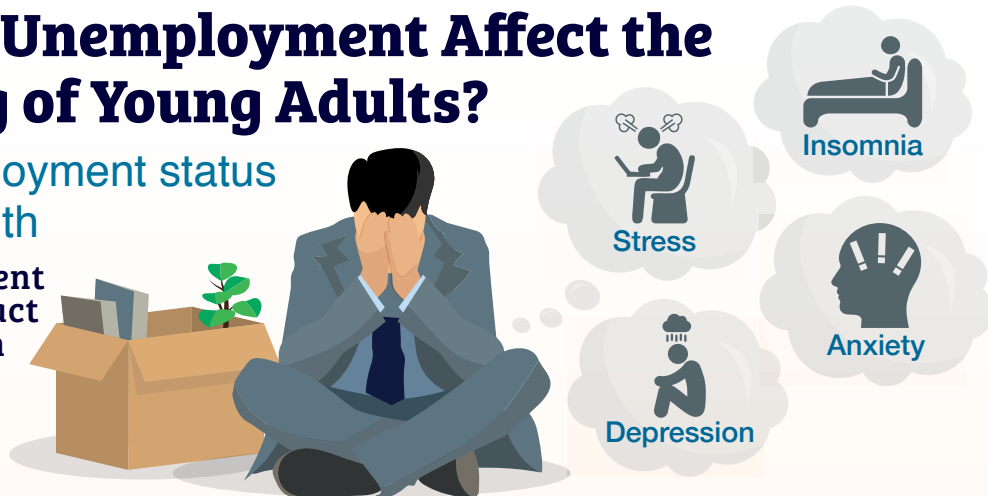


Poorer clinical outcomes in schizophrenia were associated with decreased DMN connectivity

How Does Unemployment Affect the Well-being of Young Adults?

Impact of employment status on mental health

Lack of employment security can impact the mental health of young adults



Methodology

Korea Youth Panel survey datasets



Participants who were paid employees or seeking a job



Latent class growth analy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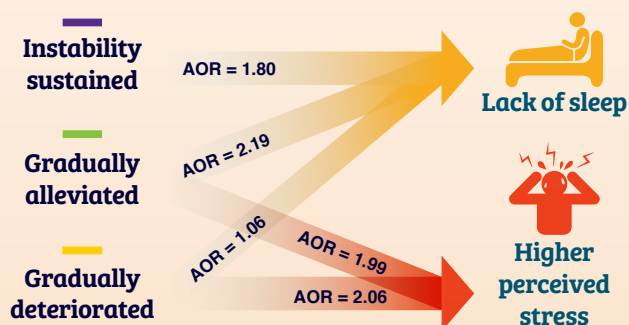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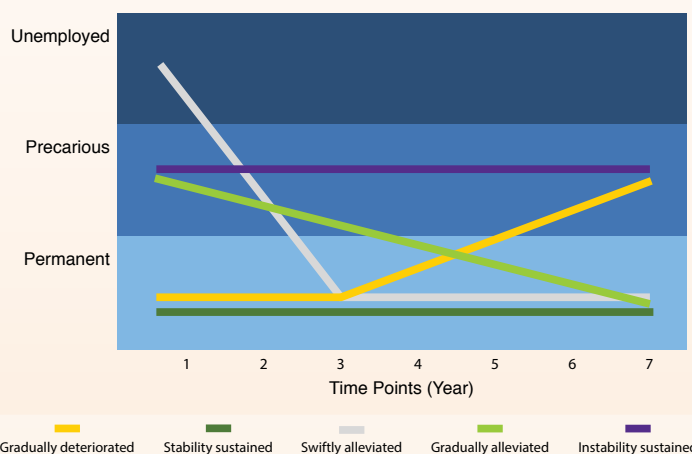


Outcome measures



Results

Trajectories of employment status change identified



Young adults who go through prolonged unstable employment are at high risk of negative health outcomes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TEL (02) 2204-0375 FAX (02) 2204-0393
<http://www.ncmh.go.kr/>

